(상처받을까봐)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취약성은 어떤 것인가요?

나의 취약성은 열등감이다. 애써 외면하려 한다. 그리고 만족하려 한다. 난 할 만큼 했으니 괜찮다고, 그렇게 얼렁뚱땅 마무리를 짓는다. 잠시 외면하려 잊고 살아도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열등감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를 보았을 때 폭발해 버린다. 나는 나름대로 방어기제를 만들어 카카오톡을 제외한 sns를 전혀 하지 않으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하지만, 그게 전부는 아니었나 보다.

어제 친구를 만나고 왔다. 나와 그 친구는 같은 목적을 두고 달렸다. 하지만 그 결과에서는 그 친구는 성공, 난 실패했다. (나는 이루지 못했으니까. 나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) 그냥 그 친구와 같이 있던 시간 내내 주눅이 들었다. 빨리 집에 가고 싶고, 이런 공허해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다.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. 참 이기적이다. 그렇게, 그 친구와의 만남을 뒤로한 뒤, 집에 와서는 자격지심에 찌들었다. 괜히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 부모님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을 했다. 사실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걸 알면서도 내 속 편하자고, 내가 못한 건 비단 나 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, 난 최선을 다했다고, 그렇게 위안을 삼았다.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인다. 억울하다. 억울해. 도전의 기회가 많은 그 친구가 부러웠다.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한심했다. 시험에 대한 고민을 끝냈다고 생각했다. “난 안될 거였어, 이 길 아닌 다른 길은 많아” 근데 잘 모르겠다. 아직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, 해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나 보다. 다시는 못할 것 같았는데,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젠 나도 잘 모르겠다. 잘 해낼 자신이 없다. 너무 무섭다. 그런데 이대로 살면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 친했던 친구들을 더 이상 내가 못 만날 것 같아 두렵다.